

계몽 선교

2025년 3월 중, 박재현/정은실M 드림

아침 일찍 영양쌀 음료를 만듭니다. 빈민촌 무료학교 '꿈들의 집' 어린이 수업이 있는 날이거든요. 미국 선교단체에서 받은 여러 필수영양이 포함된 쌀을 끓여 죽을 만들어 식혀 먹서기로 간 후, 생강/흑설탕/분말우유/생수/얼음을 넣어 저으면 냉영양쌀 쥬스가 됩니다. 5컵까지 마시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싼 화학가루 쥬스에 길들여진 아이들도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생일을 맞은 아이들이 많아 인터뷰한 영상을 드립니다. 베네수엘라 난민 아이들이 많다 보니 힘든 삶의 무게 때문에 부모와 가족의 변화가 많습니다. 또, 국경을 너머 수백키로를 걸어서 오다 15세에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어 쌍둥이를 가지게 된 청소년 홀모도 있구요. 인디언가정 아이들은 옛 한국처럼 아이들 절반은 굶거나 병으로 죽으니 주민등록을 하지 않기도 해서, 생일을 정확히 모르고 학교도 서류 미비로 못 다녀 막노동을 형에게서 배웁니다. 저는 그들이 거리에 방치되지 않고 이곳에서 자연스럽게 주님을 알고 영육의 쉼과 인생에 필요한 것을 돋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죠...

계몽이란 말을 요즘 자주 듣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큰 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산을 향해도 원통한데 당나라로 가는 듯 합니다. 많은 것을 계몽 계몽하는 시대입니다.



2019년 교실을 짓고 몰려든 아이들에게 가장 가성비 영양식은 삶은 계란이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은 어느듯 많이 자라서 청소년반이 개설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끔 통닭을 먹습니다. 많이 발전했습니다. 주님 은혜, 후원교회에 감사합니다.

콜롬비아는 초등과정이 의무교육이지만 문제가 많아서 국민들은 조금만 경제여건이 나아지면 자녀를 사립학교로 보냅니다. 그래서, 다양한 학비의 작은 사립학교가 많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의무교육으로 정부의 엄청난 세금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공립학교에서 오후반이 배정되어 꿈들의 집에 못 오는 아이들이 지난주에 웃으며 왔습니다. 학교가 파업이라 수업이 없다는 겁니다. 공립학교의 파업이 매우 많습니다. 교사의 월급 미지급이 워낙 잦으니 교사들이 기다리지 않고 즉시 즉시 파업을 합니다. 그런데 보강수업은 형식적으

로 합니다. 그러니 잊은 파업을 보고 대충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들 보며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공부할까요... 학교를 몇 년 다니는 데도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아니면 매우 서툰 아이들입니다.

영어 수업도 있다는데 스페인어와 동일한 알파벳인데도 발음을 제대로 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공립학교 영어교사는 과연 영어단어를 얼마나 알고 발음할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점도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참 못하는데요. ‘하와 유? 파인, 앤 유?’ 그러면 박수. 와~ 함성 나옵니다. 영어 못해도 선교사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교육 열정은 유교의 공일까요... 복음과 물질의 은혜를 함께 받은 나라는 개도국 중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따라서, 해외선교를 열심히 한다/할수 있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복의 증거입니다. 아프리카는 무려 지난 수 백년동안 서구 선교사가 부은 헌신의 피와 헌금이 엄청 났습니다만 그 열매는 일시적이라는 것이 세계선교역사의 평가입니다. 중남미는 더디게 발전합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교육에 대한 열정이 높았기에 서구 선교사의 교육을 적극적으로 수용했고 발전을 빠르게 이루었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글로이시넷의 언니 프란첼리스입니다. 만나면 항상 쓰레기 들고 다니는 3형제입니다. 잘 출석하는 형제들이 수업에 안 왔는데 마침 길에서 만나 물으니 ‘옷을 세탁해서 없어서 못갔어요’합니다. 옷이 몇 벌 없거든요... 한국/미국 다녀올 때 버리는 옷을 무거워서 못 들고 오는게 항상 가슴 아픕니다.



저의 사명은 기독교육으로 가난의 세습을 끊도록 돋는 것입니다. 쓰레기 뒤지는 아이들 중 공부하고 싶지만 부모 도움이 없는 아이들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보람 있습니다. 이곳은 가난한 지역이다 보니 유네스코, 월드비전, 사마리안퍼스, 처음 듣는... 많은 구호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을 하는 곳은 이곳이 유일한 듯 합니다.

요즘 나라가 걱정되어 머리가 시사적인 시스템이 되어가다 보니 간단한 콜롬비아와 한국의 관계에 관련된 사실도 전해 드리죠.

제1. 콜롬비아는 한국 625전쟁 충남미 유일 참전국입니다.

수 천명이 번갈아 참전해 60여명이 전사한 혈맹입니다. 당시 귀국하는 한 병사가 가방에 작은 한국 아이를 넣어 콜롬비아까지 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한국 방송국이 찾아갔으나, 그분은 노환으로 이미 사망하셨고 그들의 자녀들은 혼혈이 되어 구분도 잘 안되고 말도 잊어버렸죠.

하지만, 자녀들이 한국인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아리랑이든가요 그분이 즐겨 부르시든 한국 노래를 흥얼거리며 눈물 흘리며 추모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과 한국정부가 625참전관/상이용사병원/참전용사회관을 기증해 운영 중입니다.

계몽2. 콜롬비아의 해방신학과 한국의 민중신학

콜롬비아 메데진 카톨릭 주교회의에서 1968년 '해방신학'(사회의 악한 구조를 혁명함이 구원이며 이를 위해 행동함이 선교)이 선언되었는데, 이것이 한국으로 와 '민중신학'이 되어 정의구현사제단/도시산업선교회 등 반미정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요즘 목사/교회가 왜 정치참여하느냐? 묻기도 합니다만... 민중신학을 추종하는 진보자유주의 교단은 정치참여는 사회구원을 위한 선교(미션/의무)입니다. 교단 기장(기독교장로회/수원 한신대 신학과- 교내 술 제일 잘 먹는 과)이 중심이며 극소수의 감리교/통합(장신대) 목사도 참여합니다. 사회구원을 위해서 목회를 안하고(진보자유주의 신학 교단/교회는 목회/성장/부흥 안됩니다.) 사회단체 결성해서 정부의 지원으로 월급을 받는 직업으로 활동하기에 정확한 통계가 안 나오지만, 그들의 사회정치참여는 선교적 사명/삶이고 당연히 투옥/전과 같은 진리를 위한 고난으로 여깁니다. 현재의 동성애 지지(포괄적차별금지법)도 이들이 합니다. 콜롬비아에서는 해방신학의 영향으로 일부는 게릴라를 결성해 총을 쏘며 활동했고 70년 지난 지금도 일부 밀림/국경지역은 내전 중입니다. 그러나, 게릴라 전쟁에 국민들은 외면하고 오히려 중남미 최장으로 친미 대통령들을 선택했습니다.

계몽3. 선교와 국력(경제)은 비례합니다. 선교는 은혜!!! 선교는 사명!!!

카톨릭 때 스페인, 포르투갈이 그러했고 개신교 시대에는 영국과 미국이 그러했습니다. 국력(경제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금이 없으면 선교 못합니다. 처음 교실을 건축할 때 도둑이 많은 이곳에서는 담장을 먼저 건축해야 하나 사람이 모이는 것이 목적이므로 교실을 먼저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사탕 하나에 엄청 왔습니다. 더 오지 않도록 규칙을 높여도 왔습니다. 아이들이 많으니 교실이 더 급했고 3줄의 철조망 담장으로 3년을 보냈습니다. 사방에서 안을 들여다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두려웠는데 이곳의 빈민/난민들은 외국인에게 동지의식을 느낀 것 같습니다. 철조망 사이를 작은 아이들이 이곳저곳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했습니다. 현지인 목사가 불쌍히 여겨 원치 않는 길거리 밥(비위생적)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교실은 더 지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후원교회와 후원자들의 현금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청소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때입니다. 매일같이 후원교회/후원자 건강/재정/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세상의 많은 나라/사람 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은 전도/선교를 하게 함입니다. 그 복을 계속 누리려면 선교를 계속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와(선교/전도) 예배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 기도 제목 >

1. 길고 깊은 기도/경배의 시간을 드리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도록
2. 4명의 교사와 학생들의 믿음과 가난한 삶을 보호해 주시도록
3. 청소년반 개설을 위한 좋은 교사를 만나고 기숙통합시설 건축이 잘 진행되도록
4. 성경신학 세미나(BEE) 잘 진행되도록
5. 총 강도/비위생/위험한 운전의 환경에서 안전/건강하게 사역하도록
6. 보철 치아가 약간 흔들려 불안한데 치료할 때까지 잘 사용하도록
7. 후원교회의 평안, 후원자들의 건강/물질/가정을 위해서